

Sports

“李, 5번 타자 사수하라”

日 요미우리 적합자 결정 못해 아베·다카하시와 경쟁 가능성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이승엽(33·요미우리 라이온즈·사진)의 기축년 새해 목표가 보다 명확해졌다. 요미우리 계열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1일 인터뷰에서 하라 다카하시 감독과 신년 인터뷰를 하고 내년 팀 운용 방안,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의 각오 등을 전했다.



시 요시노부(이상 외야수) 등이 꼽는다. 하라 감독은 5번 타자의 조건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자가 있을 때, 주자를 모아야 할 때를 가리지 않고 희생하는 물론 화끈한 한 방 등을 두루 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라 감독은 7년 만에 일본 최정상에 오르고 3년 연속 센트럴리그 우승을 위해 풀어야 할 최대 난제로 5번 타자를 꼽았다. 하라 감독은 “5번 타자가 어떤 활약을 해주느냐가 올해 타선의 요점”이라고 단언하면서 3번 오가사와 미치히로, 4번 알렉스 라미레스처럼 시즌 내내 꾸준히 때려줄 수 있는 선수를 탐색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시즌 5번 타수에 이승엽을 필두로 7명이나 기용했지만 고부동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올해 5번을 질 유력한 후보로는 이승엽, 아베 신노스케(포수), 다니 요시토모, 다카하

시 요시노부(이상 외야수) 등이 꼽는다. 하라 감독은 5번 타자의 조건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자가 있을 때, 주자를 모아야 할 때를 가리지 않고 희생하는 물론 화끈한 한 방 등을 두루 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아직 5번을 맡길만한 선수를 찾지 못했다. 이승엽이 5번 후보이긴 하나 지난 시즌 성적이 좋지 않다. 다카하시 등과 스프링캠프에서 경쟁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타격 부진으로 100여일 이상 2군에 머물렀던 이승엽은 1군에 복귀한 뒤 5번 타자로 27차례 나섰다. 5번에서 타율은 0.281에 홈런 6개 21타점으로 적은 출장에 비해 성적은 경쟁 선수들보다 앞섰고 특히 타율에서는 시즌 성적(타율 0.248, 8홈런, 27타점)보다 나왔다.

경쟁자가 제법 있으나 홈런과 장타 생산 능력에서 이승엽을 따라올 이는 없다. 이승엽이 왼손 엄지 통증을 딛고 얼마만큼 빨리 감각을 되찾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요미우리와 남은 계약기간(2년) 동안 팀에 절대 희생할 자세로 올해 제2회 WBC 출전도 포기한 이승엽이 2월1일부터 시작된 5번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05:00·MBC ESPN) ▲08/09 대학장사씨를 장사급, 단체전 (13:00·MBC ESPN) ▲08/09 프로농구 <전자랜드:SK>(14:00·KBS1), <삼성:LG>(14:50·SBS스포츠·MBC ESPN), <모비스:동부>(14:45·XPORTS) ▲V리그 <LG손보:신협상무>(14:40·KBS N SPORTS) ▲08/09 여자프로농구 울스타전(중부:남부)(16:50·SBS스포츠)



볼트 100m 기록 도전

“9초 58까지 뛰겠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사진)가 2009년 새해 아침 100m와 200m에서 또 다른 세계기록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일 볼트가 100m 기록을 9초58까지, 200m는 18초대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고 이탈리아 로마발 기사로 전했다.

볼트는 전날 베이징올림픽 수영 8관왕 마이를 펠프스(미국), 스페인 테니스 영웅 라파엘 나달 등을 제치고 이탈리아 스포츠 신문 ‘다 가제타 스포르타’가 선정한 ‘2008년 올해의 스포츠맨’의 영예를 안았다.

최흥만, 크로깅에 TKO 패

‘테크노 골리앗’ 최흥만(28)이 ‘하이키의 달인’ 미르코 크로깅(34·크로아티아)의 강력한 킥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

최흥만은 지난달 12월 31일 오후 일본 사이타마슈퍼아레나에서 MMA틀로 열린 종합격투기 ‘다이너마이트 2008’ 대회 헤비급(93.1kg 이상) 경기에 출전했지만 크로깅에게 1라운드 시작 6분32초 만에 TKO로 졌다.

이로써 최흥만은 지난 6일 K-1월드그랑프리 리저브매치에서 레이 세코(37·뉴질랜드)에게 관중팬 한 지 25일 만에 또 다시 패배를 맞은 동시에 지난 6월 병역 면제와 머릿속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3연패를 당했다.

최흥만은 또 지난해 12월 제롬트 밴너(36·프랑스)와 대결에서 진 것을 시작으로는 5연패 수렁에 빠졌고 2005년 K-1 데뷔한 이후 격투기 개인 통산 8번째 패배(13승)를 안았다.



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대한항공과 삼성화재경기에서 삼성화재 안젤코(29득점)가 대한항공 진상현, 신영수(1번)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세트스코어 3-1로 승리 7연승을 달렸다.

안젤코 29점 강타... 삼성화재 7연승

대한항공에 3-1 승



‘크로아티아 특급’ 안젤코(29득점)의 폭발적인 강타를 앞세운 삼성화재가 2009년 첫날 연습 행진을 ‘7’로 늘렸다.

2일 삼성화재는 1일 인천 도원시체육관에서 계속된 NH 농협 2008-2009 프로배구 V 리그 대한항공과 방문경기에서 3-1(25-21 25-23 22-25 25-17)로 이겨 9승3패로 전날 10승(2패) 고지에 선착한 선두 현대캐피탈을 바짝 쫓았다. 지난달 10일 대한항공을 3-0으로 완파했던 삼성화재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2승1패로 앞서 갔다.

홈팬에게 올해 첫 승을 선사하려던 대한항공은 쿠바 출신 칼라의 부진과 쏟아진 범실로 자멸, 8승4패로 3위를 유지했다.

외국인 선수 대결에서 명암이 갈리면서 양팀 승부는 생각보다 심하게 끝났다. 대한항공은 1세트 초반 래프트 칼라의 공격이 두 차례나 삼성화재 블로킹에 걸리면서 주

1세트 5점에 그쳤던 안젤코는 2세트 왼쪽 오른쪽을 오가며 코트를 찢을듯한 볼꽃타를 잇달아 터뜨렸다. 후위공격으로 17-17 동점을 만든 안젤코는 19-18, 22-20, 23-22 등 박빙 상황마다 타점 높은 강타를 내리꽂고 2세트에서만 11득점, 대한항공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3세트를 내줬지만 삼성화재는 4세트 안젤코가 오른쪽에서 잇달아 강타를 터뜨려 12-10으로 리드했고 16-13에서 고희진의 연속 블로킹과 상대 범실이 나오면서 18-13으로 점수를 벌려 승기를 잡았다. 대한항공은 3세트에서 장광균을 대신해 쉐 필라가 블로킹으로 2득점하고 신영수(16득점) 등이 분전, 한 세트를 만회했으나 4세트 실책을 남발, 고배를 들었다. 대한항공은 쉬운 서브 실수를 포함한 범실을 33개나 저질렀다.

“위성미 PGA 소니오픈 출전 안한다”

AP통신 보도



남자골프대회에 도전했던 재미교포 위성미(19·나이카골프·사진)가 올해에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31일 AP 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1월15일 개막하는 소니오픈 조직위원회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생이 된 위성미가 고향 하와이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작년 이어 올해도 출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미는 2003년부터 네차례 연속 이 대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위성미는 “당분간 LPGA 투어에 전념하겠다”고 했지만 “남자대회에 언젠가는 다시 도전해 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회가 낳은 또 하나의 스타 테드 후지카와의 출전도 불투명하다. 2007년 소니오픈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컷을 통과했던 후지카와는 2008년 대회에서는 스폰서 초청 선수로 참가했다가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 2일(금) ▲대학장사씨를 용장, 역사급(13:00·MBC ESPN) ▲프로농구 <KTF:오리온스>(18:50·SBS스포츠·XPORTS·MBC ESPN) 3일(토) ▲08/09 잉글리시 FA컵(토트넘:위건)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해령법률경매' (Haeryeong Law Auction) featuring a representative and various legal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승공인중개사' (Daesung Real Estate) featuring a representative and services for water supply zones and apartment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正心 正視 正行' (Jeongsin Real Estate) featuring a representative and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Real Estate) featuring a representative and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a representative and various real estate services.